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이용한 한국 사회의 혐오 양상 분석*

Analyzing the Phenomena of Hate in Korea by Text Mining Techniques

김 혜 진 (Hea-Jin Kim)**

목 차

- | | |
|----------|--------|
| 1. 서 론 | 4. 논 의 |
| 2. 연구 방법 | 5. 결 론 |
| 3. 연구 결과 | |

초 록

혐오는 타인에 대한 배타성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잘못된 대중적 인식을 통하여 양산되고 재생산된다. 이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언급되고 있는 '혐오' 양상을 거시적으로 탐색하고자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뉴스데이터 17,867건을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키워드 네트워크와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단어를 추출하기 전에 먼저 기사를 문장으로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혐오', '편견', '차별'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 총 52,520개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혐오'라는 단어와 인접한 단어들로 구성된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수집한 뉴스데이터의 단어 동시출현빈도 분석 결과,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관련되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대상은 여성, 인종, 성소수자 등이며, 관련된 이슈는 이들 집단과 관련된 법과 범죄 등이었다. 키워드 네트워크 군집 분석 결과, 성별(41.4%), 소수자(28.7%), 인종·민족(15.1%), 선택적·이해관계적(8.5%), 정치·이념(5.7%), 환경·생존적(0.3%) 혐오 등 총 6개의 혐오 군집들이 발견되었다. 논의에서는 군집 분석 결과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혐오의 표적(대상)을 모두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ABSTRACT

Hate is a collective expression of exclusivity toward others and it is fostered and reproduced through false public perception.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objects and issues of hate discussed in our society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To this end, we collected 17,867 news data published from 1990 to 2020 and constructed a co-word network and cluster analysis. In order to derive an explicit co-word network highly related to hate, we carried out sentence split and extracted a total of 52,520 sentences containing the words 'hate',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the preprocessing phas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frequency of words in the collected news data, the subjects that appeared most frequently in relation to hate in our society were women, race, and sexual minorities, and the related issues were related laws and crimes. As a result of cluster analysis based on the co-word network, we found a total of six hate-related clusters. The largest cluster was 'genderphobic', accounting for 41.4% of the total, followed by 'sexual minority hatred' at 28.7%, 'racial hatred' at 15.1%, 'selective hatred' at 8.5%, 'political hatred' accounted for 5.7% and 'environmental hatred' accounted for 0.3%. In the discussion, we comprehensively extracted all specific hate target names from the collected news data, which were not specifically revealed as a result of the cluster analysis.

키워드: 동시출현 단어 분석, 노인 혐오, 성소수자 혐오, 여성 혐오, 인종 혐오, 텍스트마이닝
Co-word analysis, Gerontophobia, LGBTQ hate, Misogyny, Xenophobia, Text-mining

* 이 논문은 2019년 공주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부교수, 학교도서관교육연구소 소장

(erin.hj.kim@kongju.ac.kr / ISNI 0000 0004 6853 5079)

논문접수일자: 2022년 10월 18일 최초심사일자: 2022년 11월 4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11월 16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4): 431-453, 2022.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4.431>

© Copyright © 2022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배경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구성원과 구성원들의 개성이 이전보다 더 다양해진다는 것을 포함한다. 한국은 이미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사회’로 변화되어(한국일보, 2018.10.30. 일자) 각자의 개성 및 취향을 수용하는 사회로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변화이며, 각종 소수 그룹을 ‘혐오’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관련 범죄가 발행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혐오가 왜 문제가 되는가? 혐오란 특정 대상에 대한 편견의 표현으로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사회적 고정관념에 의해 집단적으로 형성되는 감정으로 혐오는 사람들에게 학습되고 확장된다(엠케, 2017, 23). 즉, 혐오는 타인에 대한 배타성이 집단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잘못된 대중적 인식을 통하여 형성되고 재생산된다. 따라서 혐오는 차별과 범죄, 사회갈등이라는 결과를 야기한다(윤은주, 2019, 242).

현대사회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소비가 대중화되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적대적 감정 또는 혐오도 빠르게 확산·재생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인을 표적으로 하는 혐오발언 또한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이정념, 2016, 38). 익명성 안에 감추어진 모욕과 비하, 조롱 등의 언어적 표현은 표적이 된 개인 또는 집단에게는 내면에 깊은 상처를 주고, 혐오적 표현을 접한 사람들에게는 부정의 감정을 전염시킨다(허라금, 2018, 66). 혐오발언의 표적이 된 발화의 대상은 실제

로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최악으로는 정신병이나 자살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홍성수, 2019, 192). 문화체육관광부(2018)가 국내 거주 만 15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혐오 표현의 노출 경험과 인식조사(『혐오 표현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총 1,200명의 응답자 중 83.8%가 혐오 표현을 경험해 본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혐오 표현을 경험한 사람들의 70% 이상이 일상 생활에서 “이런 말을 듣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게 되었다”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표현을 내가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응답한 경우도 17.0%로 나타나 혐오 표현에 노출된 후에는 본인도 혐오 표현을 확산하는 주체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설문 응답자들의 80% 이상이 혐오 표현은 잠재된 차별의식이 드러난 것이며, 언론의 자극적·선정적 보도로 인해 과장되고, 사회적 갈등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문제가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혐오 대상으로 지목받고 있는 개인 또는 집단은 주로 인종, 민족, 국적, 지역, 종교, 성, 성적 지향 등 태생적 속성을 가진 집단들이다. 이러한 속성을 배제하고 부정하는 것은 인간(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조해정, 2021, 147). 이것은 곧 평등과 포용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하는 것을 의미한다(박승호, 2019, 47). 따라서 우리는 혐오 현상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사회적 위협요인으로 인식해야 하고(장세길, 2018, 4), 범국가적, 범사회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타인에 대한 배타성의 표현을 자율성이라고 용인하는 오류를 범한다

면, 다민족·다인종·다문화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타인에 대한 수용성은 영원히 이를 수 없는 난제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혐오 현상을 범국가적, 범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 사회가 담고 있는 혐오 양상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사회에서 혐오의 표적(대상)과 이슈(주제)들이 어떤 양상으로 다뤄지고 있는지 분석해 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혐오 현상의 지형도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뉴스데이터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동시출현 단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군집 분석을 수행하였다.

1.2 선행연구

문화체육관광부(2018, 21-40)의 『혐오 표현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 의하면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한 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은 신문, 방송, 영화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가 절반(49.8%)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에서는 뉴스기사(49.8%)와 댓글(21.6%), 소셜네트워크(15.1%) 등이 주요 유통채널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이런 매체들 즉, 온라인 뉴스데이터와 소셜데이터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혐오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

1.2.1 여성·성소수자 혐오 연구

현대의 여성 혐오가 가지고 있는 정서에 대해 우에노 치즈코(2012, 12-13)는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성적 도구로

객체화하는 여성에 대한 멸시와 타자화라 하였다. 여성을 지칭하는 비속어, 매춘 등을 나타내는 성적 비속어, 여성스러움 또는 여성의 신체를 강조하는 어휘 등이 여성 혐오를 나타내는 어휘들이라 할 수 있다(Frenda et al., 2019).

이수연, 김현정, 정수연(2016)은 뉴스사이트, 커뮤니티/카페, 아프리카TV에서 발생한 성차별적 댓글과 발언 4,272건을 수집하여 동시출현 단어 네트워크와 군집 분석을 통해 온라인 성차별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온라인에서 아무 이유없이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성차별, 비하, 혐오가 만연해 있음을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진경선 외(2017)는 단체카톡방의 언어 성폭력 관련 기사와 댓글을 수집하여 단톡방 언어 성폭력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들은 동시출현 단어 네트워크와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수집된 댓글들의 하위 토픽들을 파악하였다. 동시출현 단어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언어 성폭력에 대한 폭로, 여성 혐오 표현 등의 군집들이 발견되었고, 토픽모델링을 통해서 여성 비하와 혐오에 대한 토픽이 상당수(10개 토픽 중 5개 토픽) 발견되었다. 배기쁨, 김찬우(2019)는 네이버와 다음의 뉴스기사와 블로그·카페글을 대상으로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에 대해 키워드 빈도분석을 수행하였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치의 데이터에서 성별 혐오의 발언들은 해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특히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폭발적 증가를 보였다. 김지수, 윤석민(2019)은 유튜브와 아프리카TV의 여성 혐오발언을 분석하여 여성 혐오발언의 내용과 공격성이 어떻게 상업적 이익으로 전가되는지 분석하였다. 여성

혐오발언은 후원수익과 광고수익 등 수익지표와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며, 성·여성성, 외모에 대한 비하 발언이 혐오발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중우(2021)는 2000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도된 국내 주요 일간지의 뉴스 기사를 대상으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드러난 한국 사회의 갈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인권 인식 등에 대한 담론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주요 아젠다로 장애, 성적지향, 젠더, 노동, 선거 등이 발견되었으며, 성적지향 주제는 개신교 우파와 관련된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2.2 노인·장애인 혐오 연구

한국 사회는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¹⁾에서 제공하는 『대한민국 주요 인구지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1990년도에는 전체인구의 5.1%였으나 2008년도에는 두 배인 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25년에는 20.6%,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1%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 사회 진입은 세대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양혜승, 2022, 14).

안순태, 이하나, 정순돌(2021)은 네이버 뉴스 댓글을 1개월간 수집하여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온라인상에서 노출되는 노인의 이미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으며 이로 인해 노인들 또한,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았다. 신경아, 최윤희(2020)은 국내 5개 주요 일간지의 노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수집하여 노인에 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에 대한 댓글의 84.9%가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고 있었고, 그중에서도 21.3%가 혐오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장애인에 관한 혐오 관련 연구로는 박승희, 염지혜, 이현주(2021)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주요 4대 일간지(조선, 한겨레, 동아, 중앙)에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포함된 4월에 발행된 사설과 평론기고를 대상(총 25편)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지난 30년간의 인식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990년대에는 장애인을 혐오 또는 사회로부터 분리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면, 2000년대에는 ‘시민구성원’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의 변화를 발견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등 부정적인 이미지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2.3 외국인 혐오 연구

외국인 혐오는 주로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혐오 연구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팬데믹과 함께 외국인 혐오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이연호, 정석호, 2022, 108).

강진구(2021)는 2020년도에 작성된 네이버 뉴스 댓글을 수집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베트남 정부의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는데, 토픽 분석과 감정 분석의 결과로 타자에 대한 우월감과 정치적 적대감이 혐오의 감정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었다. 김용희, 한창근(2021)은 국내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처음 보도된 2020년 1월 20일부터

1) <https://kosis.kr/>

5개월간 발행된 국내 뉴스 기사를 대상을 코로나19와 사회갈등을 분석하였다. 이들은 키워드 출현 맵과 키워드 이슈 맵을 통해 강신호와 약신호를 보이는 관련 키워드를 제시하였고, 경제, 대통령 등이 강신호의 영역으로, 혐오, 교육, 통합 등이 잠재신호의 영역으로 분류되었다. 양혜승(2022)은 네이버뉴스에서 범죄뉴스를 수집하여 뉴스댓글에 나타난 여성, 노인, 이주민에 대한 혐오성 주제를 분석하였다. 여성 혐오성 댓글에서는 여성을 열등적 존재로 인식하거나, 여성우대에 대한 역차별적 피해인식, 기혼 여성 및 페미니즘, 성폭행·범죄 등의 피해자 혐오 등 4개의 주제가 발견되었고, 노인 혐오성 댓글에서는 노인에 대한 신체·능력의 비하, 노인세대와 기성세대와의 갈등, 노인들은 극단 보수일 것이라는 일반화된 인식 등 3개의 주제가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이주민 혐오성 댓글에서는 중국동포, 동남아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등 3개의 관련 주제가 발견되었다.

이상으로 온라인 텍스트데이터를 이용하여 여성, 성소수자, 노인,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혐오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특정 계층 또는 집단에 중점을 둔 미시적 혐오 분석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나타난 혐오 현상을 거시적으로 분석하고자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30년간의 관련 뉴스데이터를 수집하였고,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혐오의 대상(집단)과 관련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추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혐오 대상 및 주제의 분포와 변화들을 분석하여 제시해봄으로써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 현상에 대한 인식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2.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이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혐오의 대상과 이슈를 탐색하기 위해서 빅카인즈 뉴스 데이터베이스²⁾에서 “한국 & 혐오”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1990년부터 2020년까지의 뉴스데이터를 크롤링하여 자동 수집하였다. 그 결과 총 17,867건의 뉴스데이터가 수집되었고, 코모란 형태소분석기³⁾를 사용하여 명사를 추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뉴스데이터의 수집과 형태소분석은 파이썬⁴⁾ 환경에서 구현하였다. <표 1>은 빅카인즈 뉴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자동 수집한 데이터의 결과이다. 뉴스기사의 총 수집 건수는 17,867건이며, 매체 종류는 경향신문 등 54종이다. <그림 1>을 보면 “한국 & 혐오”라는 키워드 조합으로 검색된 뉴스기사는 1990년 27건을 시작으로 1990년대에는 큰 증가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2000년도에 121건으로 100건을 상회하며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1,116건의 보도를 보인다. 2020년 한해 보도된 혐오 관련 뉴스는 3,01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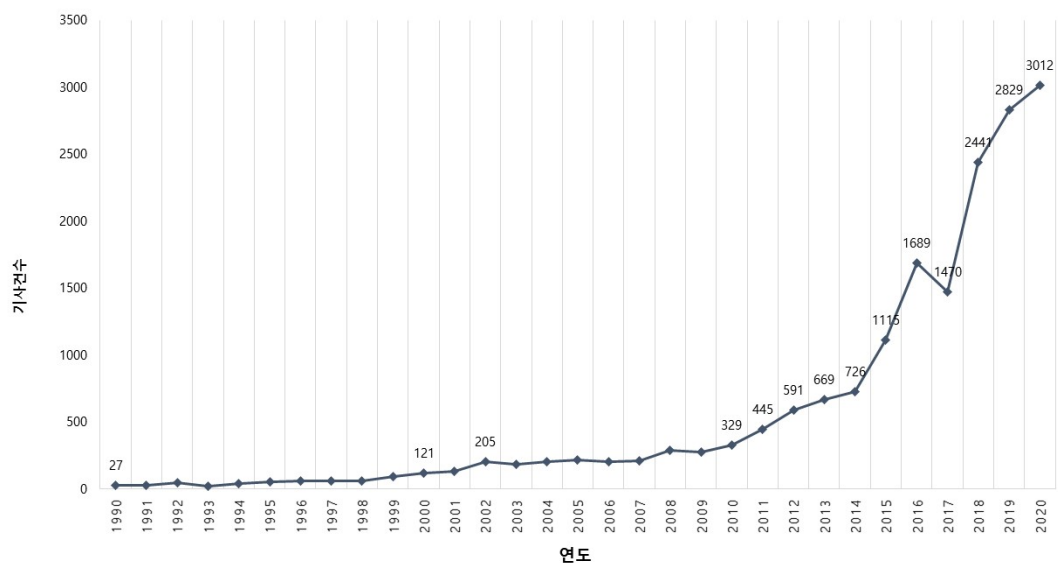
2) <https://www.bigkinds.or.kr/>

3) <http://www.shineware.co.kr/products/komoran/>

4) <https://www.python.org/>

〈표 1〉 한국 사회의 혐오 관련 뉴스기사 수집 결과

수집 기간	1990년 2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
수집 건수	17,867건
매체 종류	54종
기사 평균 길이(글자 수)	2,343자
‘혐오’, ‘편견’, ‘차별’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	52,520개



〈그림 1〉 연도별 혐오 관련 뉴스기사 발행 빈도

이 연구에서는 ‘혐오’라는 단어와 근접하게 언급된 단어들만으로 구성된 동시출현 단어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수집된 총 17,867건의 뉴스데이터의 본문 전체를 대상으로 단어를 추출하지 않고 혐오와 관련된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만으로 제한하여 단어를 추출함으로써 ‘혐오’와 명시적으로 가까운 단어들로 구성된 키워드 네트워크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단어를 추출하기 전에 먼저 기사를 문장으로 분리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혐오’, ‘편견’, ‘차별’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총 52,520개의

문장만을 분석대상으로 한정하였다.

2.2 동시출현 단어 네트워크와 군집 분석

이 연구에서 혐오의 대상과 관련 이슈의 분석을 위해 사용한 방법은 동시출현 단어 분석과 군집 분석 기법이다. 동시출현 단어 분석은 정보학(Information Science)의 한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계량정보학(Infometrics)의 분석기법 중 하나로 텍스트마이닝 기술을 활용해 본문으로부터 키워드를 추출하고 정제하여 동시출

현(co-occurrence) 단어쌍을 추출한 후 이것을 기반으로 키워드 네트워크(co-word network)를 구축하여 관련 주제의 동향을 분석하는 기법이다(김하진, 송민, 2014; 안주영, 안규빈, 송민, 2016). 동시출현 단어 분석의 기본 전제는 두 키워드가 동일한 문맥에서 동시에 출현하였다면 이 두 키워드의 주제는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Liu, Hu, & Wang, 2012). 이때 동일한 문맥이란 문헌 또는 문단, 문장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하였다시피 ‘혐오’, ‘편견’, ‘차별’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에서 동시출현 단어쌍을 추출하였으므로 문장 단위가 동일한 문맥이다.

동시출현 단어를 기반으로 구축한 키워드 네트워크에서의 노드(node)는 단어, 노드와 노드와의 연결(link)은 동시출현 정보로 표현된 무방향 네트워크(undirected network)이다. 이 연구에서는 단어의 동시출현빈도를 링크의 가중치로 활용한 가중 네트워크(weighted network)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링크의 가중치(두께)는 두 단어 간 동시출현빈도에 따라 증가한다. 또한 네트워크의 노드 크기는 단어의 연결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을 반영하여 시각화하여 다른 단어와 빈번하게 동시출현한 단어를 노드 크기로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결정도 중심성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의 위상(topology)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척도로 특정 노드가 얼마나 많은 이웃 노드에 직접 연결되어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이수상, 2012, 257). 즉, 연결정도 중심성은 특정 단어가 다른 단어와 문맥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동시출현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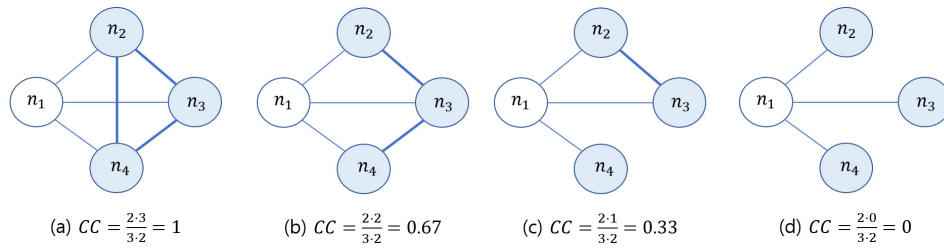
는지 나타내는 지역 중심성 지표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단어동시출현 네트워크를 구축한 후, 커뮤니티 추적(community detection)을 수행하여 네트워크의 하위 구조(군집)를 분석하였다. 커뮤니티 추적은 구축된 네트워크의 밀도(density)를 기반으로 동일한 군집 내의 밀도는 높이고, 상이한 군집 간의 밀도는 낮추는 군집들을 추출하는 알고리즘이다(Newman & Girvan, 2004). 커뮤니티 추적을 통해 발견된 군집들은 주제적 유사성(thematic similar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하위 구조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데 유용하다(Cheng et al., 2020, 5). 이 연구에서는 네트워크 시각화 오픈 소프트웨어인 Gephi⁵⁾에서 제공하는 대표적인 커뮤니티 추적 알고리즘인 Blondel et al.(2008)의 모듈성(modularity)을 활용하였고 군집화 계수(clustering coefficient)가 1일 때 발견되는 군집을 하위 군집으로 정의하였다. 무방향 네트워크에서 k 개의 이웃노드를 가지고 있는 노드 n_i 의 군집화 계수 계산은 다음과 같다(Watts & Strogatz, 1998, 440).

$$CC_i = \frac{2 \cdot (n_i \text{를 제외한 이웃노드들 사이에 존재하는 링크수})}{k(k-1)}$$

〈그림 2〉는 노드 n_1 이 n_2, n_3, n_4 , 3개의 이웃노드와 인접해 있을 때, 3개의 이웃노드들 사이의 링크 수가 각각 3, 2, 1, 0인 경우 n_1 의 군집화 계수(CC)의 값을 계산한 것이다. 〈그림 2〉의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군집화 계수의 값이 1인 커뮤니티는 서로 완전히 상호연결된 커뮤니티를 의미한다.

5) <https://gephi.org/>



〈그림 2〉 네트워크의 밀도에 따른 군집화 계수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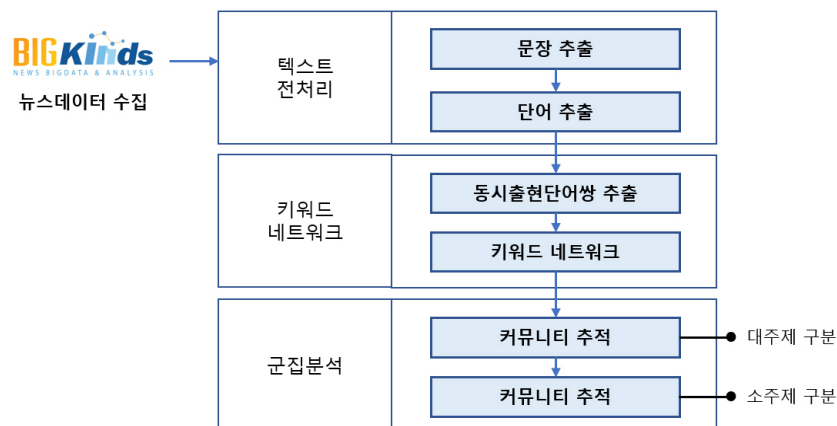
그리고 커뮤니티 추적을 통해 발견된 군집들의 군집명(cluster name)은 문화체육관광부(2018)의 『혐오 표현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활용한 혐오 유형의 구분을 따라 부여하였다.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혐오 유형을 성별, 소수자, 연령·세대, 인종·민족, 지역, 정치·이념 등 6개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1차로 추출된 군집들의 내용분석과 1차로 추출된 군집들 중 앞서 제시한 6개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 군집에 포함된 내용을 추가로 분석하기 위해 1차로 발견된 각 군집들을 대상으로 커뮤니티 추적을 한 번 더 수행하여 각

군집의 하위 군집을 발견·분석하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즉, 1차로 추출된 각 군집들을 대주제로, 1차 군집들을 대상으로 2차 군집 분석을 수행한 것은 소주제로 간주하였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추적을 통해 발견한 군집들을 시각화 도구인 Gephi를 활용하여 제시하였다. 군집의 시각화에서 노드의 크기는 다른 단어와 빈번하게 동시출현을 보이는 단어(연결정도 중심성)일수록 크게 표현되고, 링크의 두께는 연결된 두 노드 간의 동시출현빈도가 높을수록 굵게 나타나도록 하였다.

〈그림 3〉은 이 연구에 적용한 기법들과 연구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 연구 설계도

3. 연구 결과

3.1 단어 출현빈도 분석

빅카인즈 뉴스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된 ‘혐오’ 관련 뉴스데이터는 총 17,867건이다. 여기서 ‘혐오’, ‘편견’, ‘차별’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52,520개이다. 텍스트 전처리 후 정제된 고유단어 수는 26,983개이며, 총 단어 수는 702,367개이다. <표 2>는 정제된 단어들의 출현빈도 상위 60위까지의 단어들이다. “한국 & 혐오”라는 키워드로 수집된 뉴스텍스트의 특성상 상위에 분포한 단어 중 혐오(31,502회),

차별(13,887회), 사회(7,860회), 한국(5,684회), 발언(4,039회), 편견(2,837회), 혐오표현(2,064회)은 제외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단어들을 제외하고 199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혐오 관련 뉴스기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여성’(6,952회)과 ‘여성혐오’(5,945회)이다. 그 다음으로 ‘정치’(5,082회), ‘사람’(3,635회), ‘인종차별’(3,107회), ‘동성애’(3,074회), ‘법’(2,659회), ‘성소수자’(2,526회), ‘범죄’(2,523회)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관련되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대상은 여성, 인종, 성소수자 등이며, 관련된 이슈는 그와 관련된 법과 범죄 등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2> 혐오 관련 뉴스기사 데이터의 상위 60위 단어 출현빈도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기사)

순위	단어	출현빈도	순위	단어	출현빈도	순위	단어	출현빈도
1	여성	6952	21	폭력	1883	41	운동	1286
2	여성혐오	5945	22	비판	1823	42	책	1250
3	정치	5082	23	논란	1738	43	코로나19	1248
4	사람	3635	24	국가	1732	44	차별금지	1231
5	인종차별	3107	25	정부	1716	45	감정	1223
6	동성애	3074	26	제정	1690	46	현상	1188
7	법	2659	27	교수	1687	47	페미니즘	1173
8	성소수자	2526	28	소수자	1662	48	한국인	1172
9	범죄	2523	29	인종	1647	49	특정	1146
10	인권	2498	30	난민	1642	50	온라인	1146
11	일본	2476	31	집단	1600	51	지역	1134
12	남성	2474	32	미국	1583	52	정책	1123
13	외국인	2422	33	단체	1531	53	갈등	1119
14	반대	2300	34	확산	1433	54	자유	1092
15	차별금지법	2229	35	중국	1421	55	행위	1067
16	사건	2126	36	시민	1363	56	인터넷	1059
17	국민	1990	37	대통령	1360	57	종교	1056
18	문화	1948	38	성	1332	58	존재	1054
19	한국사회	1931	39	남성혐오	1326	59	비하	1035
20	성차별	1923	40	인식	1304	60	교육	995

3.2 군집 분석 - 대주제

‘혐오’, ‘편견’, ‘차별’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 52,520개에서 식별된 고유단어 총 26,985개를 대상으로 문장기반 동시출현 단어 쌍을 추출하여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커뮤니티 추적을 통해서 6개의 혐오 관련 군집들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발견된 군집들의 군집명은 『혐오 표현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제시한 혐오 구분(성별, 소수자, 연령·세대, 인종·민족, 지역, 정치·이념)과 비교하여 부여하였다. 추출된 6개의 군집 중 4개 군집(성별, 소수자, 인종·민족, 정치·이념)은 『혐오 표현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제시한 혐오 유형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2개 군집은 『혐오 표현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의 혐오 유형과 일치하는 유형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2개의 군집은 관련 선행 연구에서 찾아 적합한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반대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제시한 ‘연령·세대’, ‘지역’ 혐오 유형은 이 연구의 혐오 관련 뉴스데이터 대주제 군집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세대 간의 갈등은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에서 수집한 뉴스기사에서 ‘노인 혐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2015년 기사(YTN, 2015.10.02)인데, 이것을 시작으로 ‘노인혐오’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뉴스기사는 17,867건 중 2020년까지 총 65건으로 그 건수만으로 보면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주제 군집 분석에서 그 유형이 나타나기에는 아직은 적은 분포인 것에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대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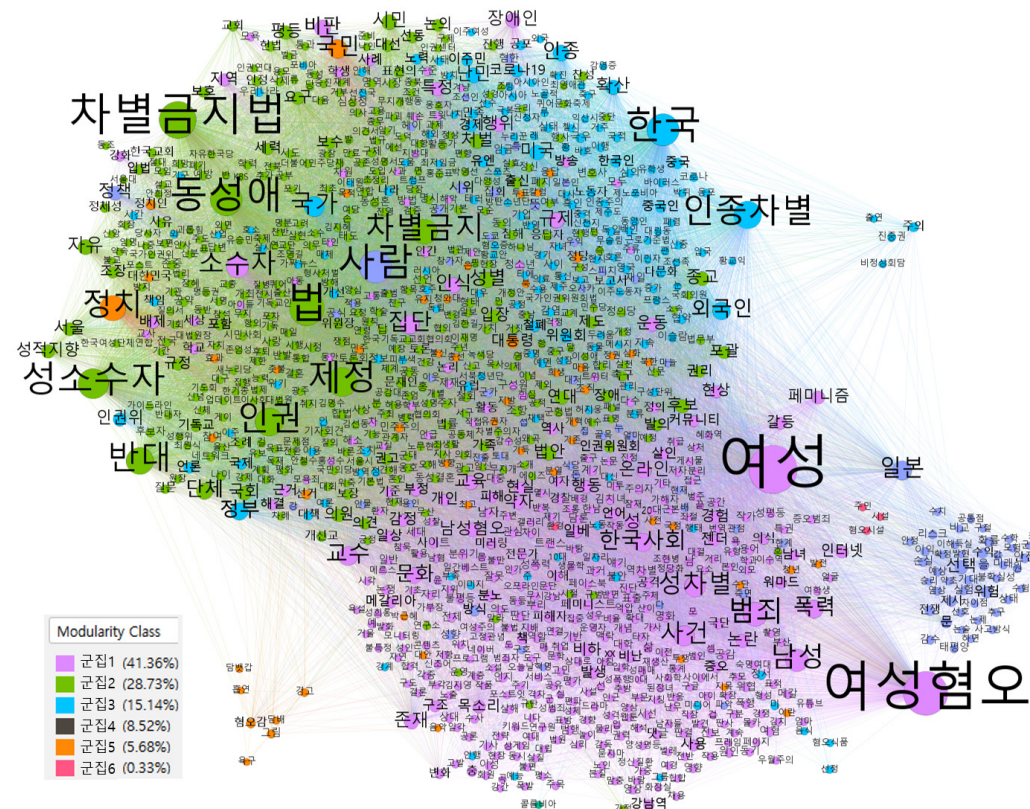
인식조사에서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매우 동의 27.2%)이 다른 유형의 혐오표현에 비해 현저히 낮게 인식되고 있었는데(성별 45.6%, 인종·민족 37.8%, 소수자 35.9%, 연령·세대 30.5%), 이러한 인식은 실제 뉴스기사에서 빈번하게 다루어질 만큼 사건·사고의 발생도 또한 낮은데 기인한 것일 수 있다.

〈표 3〉은 이 연구에서 커뮤니티 추적 기법을 통해 추출한 6개의 군집(대주제)과 군집별 상위 25개 단어들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 30년(1990년부터 2020년)간 발행된 혐오 관련 뉴스기사에서 가장 큰 군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여성혐오, 남성혐오를 아우르는 군집인 ‘성별’ 혐오로 전체의 41.4%를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소수자’ 혐오 군집이 28.7%, 외국인과 이주민 혐오를 의미하는 ‘인종·민족’ 혐오가 15.1%, 특정 이익을 위해 혐오를 선택적으로 취하는 개인, 기업, 국가 등이 주체가 되는 혐오를 의미하는 ‘이해관계적·선택적’ 혐오가 8.5%, ‘정치·이념’ 혐오가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0.3%를 차지하는 군집6은 혐오시설 입지를 기피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환경·생존적’ 혐오로 가장 작은 군집으로 나타났다.

이상 군집 분석을 통해 발견한 6개의 군집들에 대해 키워드 네트워크를 시각화하면 〈그림 4〉와 같다. 시각화에서는 동시출현빈도 100회 이상인 고유단어 2,113개와 단어쌍 24,227쌍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시각화를 수행하였다. 〈그림 4〉에서 군집 분석 결과 확인된 6개의 군집은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색상으로 표현되었다.

〈표 3〉 1990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혐오 관련 뉴스기사의 군집화(대주제) 결과

군집/크기	군집명	상위 25위 출현 단어
군집1 (41.4%)	성별 혐오	여성, 여성혐오, 범죄, 남성, 소수자, 성차별, 사건, 교수, 집단, 한국 사회, 폭력, 비판, 문화, 인식, 규제, 존재, 장애인, 성, 온라인, 교육, 남성혐오, 행위, 특정, 운동, 논란
군집2 (28.7%)	소수자 혐오	차별금지법, 법, 동성애, 성소수자, 제정, 인권, 반대, 차별금지, 단체, 성별, 자유, 시민, 법안, 종교, 처벌, 후보, 평등, 성적지향, 국회, 서울, 연대, 입장, 의원, 포괄, 요구
군집3 (15.1%)	인종·민족 혐오	한국, 인종차별, 국가, 외국인, 정부, 인종, 미국, 난민, 확산, 인권위, 위원회, 코로나19, 경제, 이주민, 중국, 언론, 철폐, 유엔, 중국인, 한국인, 노력, 국제, 나라, 다문화, 주의
군집4 (8.5%)	이해관계적·선택적 혐오	사람, 일본, 정책, 선택, 위협, 시위, 방식, 문, 전쟁, 을, 집회, 수익, 제시, 확률, 안전, 뜻, 지향, 기대, 성향, 이익, 공개, 손실, 원, 협한, 비교
군집5 (5.7%)	정치·이념 혐오	정치, 국민, 대통령, 정치인, 정당, 선거, 혐오감, 대한민국, 민주주의, 참여, 그림, 조직, 효과, 경고, 응답, 민주, 청년, 마음, 목적, 지방, 총선, 방향, 기존, 이란, 희생
군집6 (0.3%)	환경·생존적 혐오	환경, 혐오시설, 시설, 주민, 공원, 기피, 허수



〈그림 4〉 1990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혐오 관련 뉴스기사의 키워드 네트워크

3.3 군집 분석 - 소주제

3.3.1 성별 혐오

혐오 관련 뉴스기사에서 가장 큰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군집은 ‘성별’ 혐오(41.4%)이다. 이 군집은 여성·남성 혐오를 아우르는 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표 4>를 보면, 이 군집은 여성혐오·남성혐오(57.6%)와 그와 관련된 범죄(40.5%)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군집의 소주제인 ‘여성혐오·남성혐오’는 여성과 남성, 소수자, 장애인 등을 성별 혐오의 대상과 함께 성차별, 남성혐오, 문화, 인식, 페미니즘, 존재, 비하 등 성별 혐오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메갈리아, 일베, 커뮤니티, 워마드 등 성별 갈등을 유발하는 커뮤니티에 관한 단어들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군집의 또 다른 소주제 ‘여성혐오 범죄’는 범죄, 사건, 살인, 강남역, 감정, 증오 등

여성혐오 범죄의 내용과 집단, 특정, 약자, 개인, 피해, 피해자 등 범죄의 피해자를 포함하는 단어들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3.3.2 소수자 혐오

두 번째 군집은 ‘소수자’ 혐오(28.7%)이다. <표 5>를 보면 이 군집은 차별금지법(47.9%), 성소수자 인권(38.7%), 성소수자 차별 반대(9.6%)의 하위 군집(소주제)으로 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논의에 대해서, ‘성소수자 인권’ 하위 군집은 인권단체, 성적지향의 자유와 권리, 정체성, 침해, 인정, 존중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성소수자 차별 반대’ 하위 군집에서는 동성애, 성소수자, 차별반대, 합법, 폐지 등을 언급하며, 군형법, 군대 등 군대에서의 성소수자 이슈들도 다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별 혐오와 하위 군집(소주제)

군집	하위 군집	상위 30위 출현 단어
성별 혐오	여성혐오·남성혐오 (57.6%)	여성, 남성, 성차별, 소수자, 폭력, 한국 사회, 남성혐오, 문화, 인식, 페미니즘, 성, 비판, 장애인, 운동, 논란, 존재, 비하, 교육, 메갈리아, 일베, 갈등, 행위, 경험, 행동, 일상, 목소리, 커뮤니티, 워마드, 젠더, 구조
	여성혐오 범죄 (40.5%)	여성혐오, 범죄, 사건, 교수, 집단, 온라인, 규제, 인터넷, 특정, 약자, 현상, 살인, 감정, 개인, 지역, 강남역, 발생, 피해, 피해자, 해결, 부정, 사례, 역사, 증오, 근거, 여혐, 방송, 전문가, 정의, 강화

<표 5> 소수자 혐오와 하위 군집(소주제)

군집	하위 군집	상위 30위 출현 단어
소수자 혐오	차별금지법 (47.9%)	차별금지법, 법, 제정, 차별금지, 법안, 후보, 포괄, 국회, 평등, 의원, 대선, 입장, 발의, 연대, 보수, 기독교, 문제인, 논의, 의견, 입법, 개신교, 한국교회, 인권위원회, 출신, 권고, 촉구, 교회, 찬성, 정의당, 학력
	성소수자 인권 (38.7%)	인권, 단체, 성적지향, 성별, 자유, 종교, 시민, 처벌, 장애, 권리, 사유, 조장, 헌법, 규정, 제도, 가족, 보호, 보장, 선행, 정체성, 조항, 법률, 조례, 시도, 침해, 인정, 존중, 삭제, 변호사, 가치
	성소수자 차별 반대 (9.6%)	동성애, 성소수자, 차별반대, 요구, 세력, 합법, 후보자, 동성혼, 옹호, 폐지, 개죄, 군형법, 토론, 학술, 답변, 대회, 군대, 공동, 분, 무지개행동, 행사, 차례, 모임, 정신, 서울시, 활동가, 광고, 쿼터제, 대법원장, 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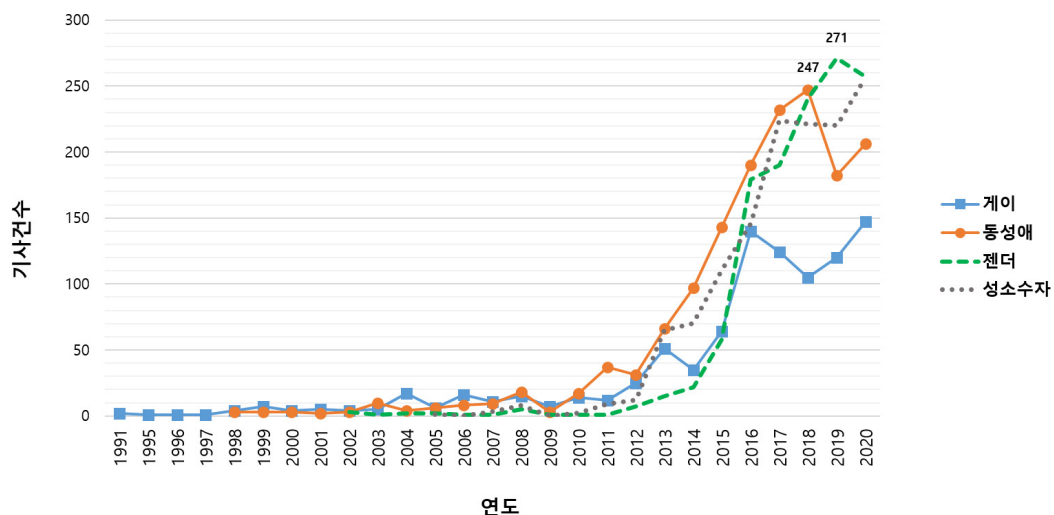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단어는 게이, 동성애, 성소수자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림 5>는 수집된 뉴스기사 중에 ‘게이’, ‘동성애’, ‘젠더’,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나타난 기사 건수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젠더’라는 단어를 빈도분석에 포함한 이유는 최근 들어 여성·남성·성소수자 등 성과 관련된 이슈에서 완곡하고 포괄적인 표현으로 ‘젠더’라는 단어가 우세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5>를 보면 성소수자를 나타내는 단어 중 ‘게이’는 1990년도부터 수집된 기사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로 1991년(2건)에 처음 등장하였다. 그다음에 등장한 단어가 ‘동성애’이다(1998년, 3건). 그 후 2002년에 ‘젠더’라는 단어가 등장하였고(3건), ‘성소수자’라는 단어는 2005년에 최초로 등장하였다(1건). 그리고 ‘게이’와 ‘동성애’라는 단어는 2012년까지는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주로 사용되었지만, 2013년 이후로는 ‘게이’보다는 ‘동성애’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고, 그와 함께 ‘젠더’와 ‘성소수자’라는 단어들의 사용이 가파르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8년 이후로는 ‘젠더’, ‘성소수자’의 사용이 ‘게이’, ‘동성애’보다 더 우세함을 알 수 있다.

3.3.3 인종·민족 혐오

세 번째 군집은 ‘인종·민족 혐오(15.1%)’이다. <표 6>을 보면 이 군집은 이주민과 이민자에 대한 차별(42.2%),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14.4%), 동양인 혐오(14.1%), 난민 혐오(9.4%), 혐오식품(2.9%)의 하위 군집(소주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주민·이민자 차별’은 인종혐오 군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혐오 대상과 이슈이다. 각국의 인종차별과 인종주의의 실태, 인권위, 유엔 등의 협약과 개선 대책, 그리고 트럼프 등이 이 하위 군집에서 주로 언급된 단어들이다. 그다음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근로기준법, 체류 등 ‘외국인



<그림 5> ‘성소수자’ 관련 단어의 출현 기사 추이

〈표 6〉 인종·민족 혐오와 하위 군집(소주제)

군집	하위 군집	상위 30위 출현 단어
인종·민족 혐오	이주민·이민자 차별 (42.2%)	인종차별, 정부, 국가, 인종, 미국, 인권위, 철폐, 이주민, 유엔, 위원회, 협약, 보고서, 유럽, 이행, 실태, 인종주의, 개선, 대책, 민족, 영국, 책임, 우리나라, 흑인, 백인, 이주노동자, 프랑스, 첼시, 선수, 호주, 트럼프
	외국인노동자차별 (14.4%)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 극우, 임금, 국적, 이민자, 러시아, 거주, 자녀, 혐오증, 제노포비아, 정, 최저임금, 황교안, 경제, 이주, 익산시, 노동, 근로기준법, 증가, 부족, 이주여성, 근로자, 노골적, 단일, 외국, 대우, 체류, 이자스민
	동양인 혐오 (14.1%)	확산, 코로나19, 중국인, 중국, 신종, 공포, 코로나, 아시아, 아시아인, 사태, 바이러스, 감염, 불안, 동양인, 박쥐, 정서, 입국, 동포, 유학생, 포비아, 황교익, 감염증, 방역, 확진, 폐렴, 대립등, 조선족, 식용, 호른바흐
	난민 혐오 (9.4%)	난민, 언론, 예멘, 이슬람, 정보, 테러, 가짜뉴스, 무슬림, 여론, 제주, 제주도, 신청자, 허위, 파리, 수용, 심사, 여명, 공정, 난민신청, 수립, 부합, 가짜, 난민혐오, 난민인권센터, 정우성, 도민, 민법, 세계, 날
	혐오식품 (2.9%)	음식, 선정, 혐오식품, 포브스, 개고기, 피단, 10대, 요리, 리스트

노동자 차별'도 인종차별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이슈로 나타났다. 또한 '동양인 혐오'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인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혐오'도 인종혐오와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이슬람과 무슬림 난민에 대한 언론보도와 가짜뉴스, 그리고 제주도, 난민신청, 수용, 심사 등 국내 수용에 대한 이슈들이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종 혐오 하위 군집에서 '혐오식품'에 대한 군집이 발견되었다.

3.3.4 이해관계적·선택적 혐오

네 번째 군집은 전체 뉴스기사의 8.5%에 해당하는 군집으로 이 군집은 『혐오 표현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제시한 혐오 유형과 부합하는 유형이 없다. 커뮤니티 추적 결과, 군집4의 하위 군집은 크게 3개의 소주제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을 보면 이 군집의 하위 군집(소주제)은 혐오와 기업·외교전략

(32.8%), 혐오와 경제적 이익(32.8%), 일본의 혐한(한국혐오) 정책(28.3%) 등으로 특정 이익을 위해 혐오를 선택적으로 취하는 개인, 기업, 국가 등이 주체가 되는 혐오 표현들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혐오를 이연호, 정석호(2022, 124)는 '이해관계적' 혐오라 유형화하였다. 이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혐오 현상으로 사회 구성원이 정해놓은 규범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회 구성원들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상을 향한 혐오이다. 즉, 개인, 기업, 또는 국가가 미래의 경제·사회적 또는 국제적 관계 속에서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일반적인 윤리 또는 규범, 협약(계약)에 반하여 혐오를 전략적으로 취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이해관계적' 혐오와 더불어 '선택적' 혐오라 명하였다.

3.3.5 정치·이념 혐오

다섯 번째 군집은 '정치·이념' 혐오(5.7%)이다. 〈표 8〉을 보면 이 군집은 선거(총선·지방)에 대한 혐오(49.2%), 정부 혐오(35.9%), 담

〈표 7〉 선택적·이해관계적 혐오와 하위 군집(소주제)

군집	하위 군집	상위 30위 출현 단어
선택적· 이해관계적 혐오	혐오와 기업·외교전락 (37.2%)	선택, 위험, 수익, 확률, 전쟁, 제시, 지향, 손실, 정책, 방식, 리스크, 감수, 이익, 태평양, 실험, 기대, 안전, 불확실성, 예상, 사고방식, 상태, 추구, 확정, 모험, 성향, 비교, 미래, 값, 공식, 선호, 공통점, 군사, 논술, 이해득실
	혐오와 경제적 이익 (32.8%)	사람, 뜻, 돈, 배, 최악, 안정, 구질, 논제, 수험, 차이점, 수학, 골목식당, 진출, 집, 한계, 치명, 예측, 계산, 주사위, 차선, 도박, 이득, 손해, 감내, 야생, 인물, 참가, 영향력, 이자, 땅
	일본·협한정책 (28.3%)	일본, 시위, 협한, 집회, 재일, 헤이, 스피치, 조선인, 참가자, 공개, 수치, 도쿄, 일본인, 우익, 오사카, 해제, 위안부, 구호, 대저, 용인, 억제, 동맹, 코리아, 수입, 아베, 언동, 독일기, 한일, 총리, 가와사키

〈표 8〉 정치 혐오와 하위 군집(소주제)

군집	하위 군집	상위 30위 출현 단어
정치·이념 혐오	선거 혐오 (49.2%)	정치, 선거, 정당, 정치인, 유권자, 민주주의, 투표, 참여, 총선, 개혁, 불신, 지방, 국정, 심화, 야당, 출마, 강준만, 공천, 기득, 기성, 냉소, 당선, 대변, 막말, 무관심, 민주화, 배신, 분열, 쇄신, 수단, 실망, 싸움, 악순환
	정부 혐오 (35.9%)	국민, 대통령, 대한민국, 북한, 민주, 박근혜, 이란, 정권, 조직, 집권, 희생, 건국, 공무원, 동학, 머슴, 봉사, 봉사자, 심부름, 외교, 응답, 직책, 청와대, 통치, 한나라당, 남녀갈등, 부시, 사전, 선거법, 위반, 전라도
	담배·흡연자 혐오 (15%)	그림, 경고, 혐오감, 담배, 담뱃갑, 흡연, 욕구, 효과, 금연, 전자담배, 흡연자, 법사위, 보건복지부

배·흡연자 혐오(15%)로 구성되어 있다. ‘선거 혐오’는 총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불신과 실망, 무관심 등을 나타내는 하위 군집이며, ‘정부 혐오’는 국민, 대통령, 정권, 조직, 집권 등 집권 정부에 대한 혐오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담뱃갑, 그림, 경고, 담배, 전자담배 등 담배·흡연자 혐오가 하위 군집으로 발견되었는데 이는 법사위,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명이 정치·이념 군집에 속한 다른 단어들과의 연결관계로 인한 하위 군집으로의 편입으로 간주할 수 있겠다.

3.3.6 환경·생존적 혐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군집은 전체 뉴스기사의 0.3%를 구성하는 군집으로 가장 작은 크기의 군집이다. 소주제 분석을 위한 하위 군집 분

석에서도 단일 군집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군집은 『혐오 표현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제시한 혐오 유형과 부합하는 유형이 없는 군집이다. 따라서 이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들 즉, 환경, 혐오시설, 시설, 주민, 공원, 기피, 하수 등이 혐오시설 입지를 기피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있다고 보고 ‘혐오시설’이라는 하위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혐오의 유형은 ‘생존적’ 혐오 범주(최현철, 2017, 179)에 가까운데 이것은 후각이나 시각에 의한 자극으로 사람(본인)의 건강에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에 혐오감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이 군집의 단어들이 환경에 국한된 것을 고려하여 ‘생존적’ 혐오와 더불어 ‘환경’ 혐오라 명하였다.

〈표 9〉 환경·생존적 혐오와 하위 군집(소주제)

군집	하위 군집	상위 30위 출현 단어
환경·생존적 혐오	혐오시설 (100%)	환경, 혐오시설, 시설, 주민, 공원, 기피, 하수

4. 논 의

이 연구에서 군집 분석의 결과로 제시한 한국 사회의 성별 혐오, 소수자 혐오, 인종·민족 혐오는 혐오의 표적이 개념화된 것이고, 선택적·이해관계적 혐오, 정치·이념 혐오, 환경·생존적 혐오는 혐오 현상이 개념화된 것이다. 군집 분석은 단어와 단어의 (동시출현) 관계를 기반으로 군집화를 수행하기 때문에 군집 분석의 결과(군집명)는 혐오 대상과 혐오 현상이 혼재하여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뉴스기사에서 혐오 표현의 표적인 혐오 대상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을 추출하여 혐오 표현의 발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혐오’, ‘편견’, ‘차별’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들(52,520개)에서 ‘혐오’라는 단어와 결합된 명사 또는 ‘혐오’라는 단어와 1 거리(distance)에 인접한 명사를 추출하였다. 즉, ‘00혐오’ 또는 ‘00 혐오’의 형태로 표현된 복합명사를 추출하여 한국 사회에서 지칭하고 있는 혐오의 표적이 되고 있는 대상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 된 52,520개의 문장에서 2회 이상 등장한 ‘00혐오’ 또는 ‘00 혐오’라고 혐오 대상을 표현된 복합명사는 총 129개이다. 이것을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표 10〉과 같다.

가장 많이 혐오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상은 ‘정치·이념’과 ‘인종·외국인’이다. ‘정치·이념’은 공산주의, 대북, 대통령, 민주화,

빨갱이, 우익, 종북, 좌파, 한나라당 등 정치적 이념을 가진 집단에 대한 혐오이다. ‘인종·외국인’ 부류는 백인, 동양인, 아시아인, 유대인, 유색인종 등 특정 인종과 난민, 이민자, 이주민, 조선족, 중국인유학생 등 국내 거주(일시적 거주 포함)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지칭하고 있다.

세 번째로 많이 언급된 혐오 대상은 ‘국가·지역’이다. 특정 국가로 한국, 북한, 미국, 러시아, 영국, 이란, 일본, 중국, 프랑스가 언급되었으며, 전라도, 호남, 홍어가 국내 특정 지역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국가와 관련하여 한류, 트럼프도 혐오 대상으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은 ‘젠더’인데, 여성 혐오를 나타내는 김치녀, 된장녀, 페미니스트, 여경 등, 남성 혐오를 나타내는 한남(한국남자)충 등의 단어가 젠더 혐오의 대상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로 많이 등장한 혐오 대상은 ‘사회계층’을 지칭하는 부류이다. 사회계층 혐오에 나타난 단어들을 통해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경제적 차이를 혐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경제적 상태와 지위를 나타내는 단어인 가난, 노동, 노조, 이주노동자, 재벌 등이 혐오의 대상으로 표현되고 있다. 또한 노인혐오, 부모혐오, 청소년 혐오 등 특정 세대가 혐오의 대상으로 지목된 것을 알 수 있다. ‘부모혐오’라는 단어는 아직 학계에 보고된 바는 없으나 자녀에게 기본적인 양육을 제공하지 않는 등 아동 학대를 저지르는

부모, 또는 한국의 교육시스템 내에서 반사회적 인 경쟁을 강요하거나 부추기는 부모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국민일보, 2019.1.18.일자). ‘청소년혐오’는 청소년을 “자아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성숙한 존재”(이승한, 2019, 62)로 간주하여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능하다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청소년을 그들과 관련된 사회·문화·경제

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체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양혜승, 2022, 14).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유가족, 위안부, 피해자 등 어떤 사건이나 범죄에 대한 피해자가 혐오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 비난”(홍주현, 나은경, 2016, 150) 현상이 만연한 것을 <표 10>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기독교와 이슬람 종교가 ‘종교

<표 10> 뉴스기사에 나타난 한국 사회의 혐오의 대상

구분	정치·이념	인종·외국인	국가·지역	젠더	사회계층
혐오 대상	공산주의혐오	난민혐오	국가혐오	김치녀혐오	가난혐오
	국회혐오	민족혐오	북한혐오	남성혐오	노동혐오
	대북혐오	백인혐오	미국혐오	남자혐오	노동계급혐오
	대통령혐오	동양인혐오	러시아혐오	남녀혐오	노인혐오
	민주화혐오	이민자혐오	아시아혐오	된장녀혐오	노년혐오
	민주화운동혐오	이방인혐오	영국혐오	성별혐오	노조혐오
	빨갱이혐오	아시아인혐오	이란혐오	여경혐오	맘충혐오
	서북청년단혐오	아시안혐오	일본혐오	여성혐오	부모혐오
	선거혐오	이주민혐오	외국혐오	여자혐오	빈곤혐오
	언론혐오	인종혐오	전라도혐오	이성혐오	이주노동자혐오
	우익혐오	일본인혐오	중국혐오	성혐오	재벌혐오
	이념혐오	외국인혐오	지역혐오	젠더혐오	청소년혐오
	전쟁혐오	유대인혐오	프랑스혐오	페미니즘혐오	
	정부혐오	유색인종혐오	트럼프혐오	페미니스트혐오	
	정치인혐오	조선족혐오	한국혐오	한남충혐오	
	정치혐오	중국동포혐오	한류혐오		
	중북혐오	중국인혐오	호남혐오		
	좌파혐오	중국인유학생혐오	홍어혐오		
	체제혐오	조선인혐오			
	한나라당혐오	한국인혐오			
구분	약자·피해자	종교	성소수자	질병·식품·동물	기타
혐오 대상	다문화혐오	개신교혐오	게이혐오	에이즈혐오	비만혐오
	소수자혐오	기독교혐오	동성애혐오	질병혐오	신체혐오
	약자혐오	기독교인혐오	성소수자혐오	전염병혐오	외모혐오
	유가족혐오	교회혐오	성적소수자혐오	코로나19혐오	인간혐오
	유족혐오	무슬림혐오	퀴어혐오	담배혐오	자기혐오
	위안부혐오	신천지혐오		개고기혐오	지방대혐오
	장애인혐오	이슬람혐오		보신탕혐오	타자혐오
	피해자혐오	종교혐오		김치혐오	타인혐오
				고양이혐오	특정인혐오
				길고양이혐오	
				동물혐오	
				벌레혐오	

혐오' 대상으로 지목된 것으로 나타났고, 게이, 동성애, 성소수자, 퀴어 등이 '성소수자 혐오', 에이즈, 코로나19가 '질병 혐오', 담배, 개고기, 보신탕이 '기호식품 혐오', 고양이가 '동물 혐오'의 대상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외모(신체, 비만)(Silva et al., 2016), 지방대도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이 연구는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발행된 뉴스데이터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단어의 동시출현빈도를 기반으로 키워드 네트워크와 군집 분석을 수행하여 우리 사회에 언급되고 있는 혐오 대상과 이슈들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단어의 출현빈도 분석 결과, 199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혐오 관련 뉴스기사에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여성'(6,952회)과 '여성혐오'(5,945회)이다. 그다음으로 정치(5,082회), 사람(3,635회), 인종차별(3,107회), 동성애(3,074회), 법(2,659회), 성소수자(2,526회), 범죄(2,523회)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혐오와 관련되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대상은 여성, 인종, 성소수자 등이며, 관련된 이슈는 그와 관련된 법과 범죄 등인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구축된 키워드 네트워크는 6개의 군집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군집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성별' 혐오로 전체의 41.4%를 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 '소수자' 혐오 군집이 28.7%, '인종·민족' 혐오가 15.1%,

'선택적·이해관계적' 혐오가 8.5%, '정치·이념' 혐오가 5.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환경·생존적' 혐오가 0.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개의 군집 중 성별, 소수자, 인종·민족, 정치·이념 혐오는 문화체육관광부(2018)의 『혐오 표현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제시한 혐오 유형과 일치하는 군집들이다. 나머지 선택적·이해관계적 혐오와 환경·생존적 혐오는 혐오 관련 선행연구에서 그 유형을 발견하여 군집명을 부여하였다.

논의에서는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수집한 뉴스기사들에서 나타나는 모든 혐오의 대상들을 추출하여 정치·이념, 인종·외국인, 국가·지역, 젠더, 사회계층, 약자·피해자, 종교, 성소수자 등을 지칭하는 혐오 표현의 표적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국민 인식조사에서 제시한 '연령·세대', '지역' 혐오 유형은 연구결과인 대주제 군집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연구에서는 뉴스데이터를 분석대상으로 제한하였기에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SNS) 데이터로 확대하여 혐오 유형을 분석하였다면 '연령·세대'와 '지역' 혐오 유형을 발견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을 연구의 한계점으로 밝힌다.

엠케(2017)는 혐오가 폭발하기 전에 그것을 미리 관찰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확대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혐오 현상과 대상, 그리고 아직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내제된 혐오 현상들을 관찰하여 봄으로써 혐오의 결과인 차별과 범죄, 사회갈등 등을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분석데이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진구 (2021). 팬데믹과 혐오-베트남 관련 기사의 댓글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37, 185-212.
<https://dx.doi.org/10.15400/mccs.2021.08.37.185>
- 국민일보 (2019. 01. 18). 자살·폭력·부모 혐오 'SKY 캐슬' 잘 포장 됐어도 막장은 막장.
 출처: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57526>
- 김중우 (2021).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담론 지형과 이중화된 인권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과정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129, 84-117. <https://dx.doi.org/10.18207/criso.2021.129.84>
- 김지수, 윤석민 (2019).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혐오발언은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유튜브 및 아프리카TV 토크/캠방 방송에서의 여성혐오발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3(3), 45-79.
- 김하진, 송민 (2014). 동시출현 단어 분석을 통한 국내의 정보학 학회지 연구동향 파악. *정보관리학회지*, 31(1), 99-118. <https://doi.org/10.3743/KOSIM.2014.31.1.099>
- 문화체육관광부 (2018). 혐오 표현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출처: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304>
- 박승호 (2019). 혐오 표현의 개념과 규제방법. *법학논총*, 31(3), 45-88.
<https://dx.doi.org/10.17251/legal.2019.31.3.45>
- 박승희, 염지혜, 이현주 (2021). 장애인의 날이 포함된 4월 신문기사에 나타난 장애인 이미지의 30년 (1990-2020)간 변화 추이. *장애와 고용*, 31(3), 165-202.
<https://dx.doi.org/10.15707/disem.2021.31.3.007>
- 배기쁨, 김찬우 (2019).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한민국 성 갈등 동향 분석 및 향후 핵심 이슈 예측.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9(2), 441-450.
<https://dx.doi.org/10.35873/ajmahs.2019.9.2.044>
- 신경아, 최윤희 (2020). 혐로(嫌老)사회: 뉴스 댓글에 나타난 노인인식과 공공PR의 과제. *광고학연구*, 31(6), 93-128. <https://dx.doi.org/10.14377/KJA.2020.8.31.93>
- 안순태, 이하나, 정순돌 (2021). 온라인상에서 공유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태도: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41(4), 505-525.
<https://dx.doi.org/10.31888/JKGS.2021.41.4.505>
- 안주영, 안규빈, 송민 (2016).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매체별 에볼라 주제 분석: 바이오 분야 연구논문과 뉴스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2), 289-307.
<https://doi.org/10.4275/KSLIS.2016.50.2.289>
- 양혜승 (2022). 여성, 이주민, 노인 혐오성 댓글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 네이버 범죄뉴스를 맥락으로. *한국방송학보*, 36(3), 1-41.

- 엠케, 카롤린 (2017). 혐오사회: 증오는 어떻게 전염되고 확산되는가. 파주: 다산북스.
- 우에노 치즈코 (2012).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서울: 은행나무.
- 윤은주 (2019). 혐오 표현에 맞서는 방법으로서 이해. *인간·환경·미래*, 22, 229-250.
<https://dx.doi.org/10.34162/hefins.2019..22.008>
- 이수상 (2012).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서울: 논형.
- 이수연, 김현정, 정수연 (2016). 텍스트마이닝 기반 토픽 분석을 통한 온라인 성차별성의 이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3(3), 159-199.
- 이연호, 정석호 (2022). 온라인 상에서 나타나는 외국 및 외국인에 대한 혐오 인식: 2019-2021년도 온라인 뉴스기사 댓글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4(1), 107-131.
<https://dx.doi.org/10.20970/kasw.2022.74.1.005>
- 이정념 (2016).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53, 37-56.
- 장세길 (2018). 혐오사회 극복과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과제. *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180.
- 조해정 (2021). 한국적 혐오 현상과 상호문화성의 이념. *코기토*, 95, 141-171.
- 진경선, 김수연, 정유경, 송현주, 송민 (2017). 단체카톡방 언어성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여성*, 22(2), 289-313. <https://dx.doi.org/10.18205/kpa.2017.22.2.009>
- 최현철 (2017). 혐오, 그 분석과 철학적 소고. *철학탐구*, 46, 175-199.
<https://dx.doi.org/10.33156/philos.2017.46.006>
- 한국일보 (2018. 10. 30). 2030년 국내 인구 10%가 이민자... 배타적 인식 바뀌야.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291240036314>
- 한희정 (2016). 이주여성에 관한 혐오 감정 연구: 다음사이트 '아고라' 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5(1), 43-79.
- 허라금 (2018). 혐오 발화, 그 억압의 두 얼굴: '문화제국주의'와 '폭력'. *문화와 융합*, 40(4), 65-93.
<https://dx.doi.org/10.33645/cnc.2018.08.40.4.65>
- 홍성수 (2019). 혐오(hate)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혐오에 관한 법과 정책. *법학연구*, 30(2), 191-228.
<https://dx.doi.org/10.33982/clr.2019.05.30.2.191>
- 홍주현, 나은경 (2016). 온라인 혐오표현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 이슈 속성별 확산 패턴 및 혐오표현의 유형과 강도. *한국언론학보*, 60(5), 145-175. <https://dx.doi.org/10.20879/kjics.2016.60.5.006>
- Blondel, V. D., Guillaume, J. L., Lambiotte, R., & Lefebvre, E. (2008). Fast unfolding of communities in large networks. *Journal of Statistical Mechanics: Theory and Experiment*, 2008(10), P10008.
- Callon, M., Courtial, J., & Laville, F. (1991). Co-word analysis as a tool for describing the network

- of interactions between bas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the case of polymer chemistry. *Scientometrics*, 22(1), 155-205.
- Cheng, Q., Wang, J., Lu, W., Huang, Y., & Bu, Y. (2020). Keyword-citation-keyword network: a new perspective of discipline knowledge structure analysis. *Scientometrics*, 124(3), 1923-1943.
- Frenda, S., Ghanem, B., Montes-y-Gómez, M., & Rosso, P. (2019). Online hate speech against women: automatic identification of misogyny and sexism on twitter. *Journal of Intelligent & Fuzzy Systems*, 36(5), 4743-4752.
- Liu, G. Y., Hu, J. M., & Wang, H. L. (2012). A co-word analysis of digital library field in China. *Scientometrics*, 91(1), 203-217.
- Newman, M. E. & Girvan, M. (2004). Finding and evaluating community structure in networks. *Physical Review E*, 69(2), 026113.
- Silva, L., Mondal, M., Correa, D., Benevenuto, F., & Weber, I. (2016, March). Analyzing the targets of hate in online social media. In Tenth International AAAI Conference on Web and Social Media.
- Watts, D. J. & Strogatz, S. (1998). Collective dynamics of 'small-world' networks. *Nature*, 393(6684), 440-442. doi:10.1038/30918.
- YTN (2015. 10. 02). [한컷뉴스] 예의지국의 씹스한 현실 '지금은 노인혐오 시대?'.
출처: https://www.ytn.co.kr/_ln/0103_201510021500083270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n, Juyoung, Ahn, Kyubin, & Song, Min (2016). Text mining driven content analysis of Ebola on news media and scientific publicatio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2), 289-307. <https://doi.org/10.4275/KSLIS.2016.50.2.289>
- An, Soontae, Lee, Hannah, & Chung, Soondool (2021). Social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shared online: focusing on social big data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41(4), 505-525. <https://dx.doi.org/10.31888/JKGS.2021.41.4.505>
- Bae, Gibbueem & Kim, Chan-Woo (2019). The trend analysis and following core issue of Korean gender conflict using social big data.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2), 441-450.
<https://dx.doi.org/10.35873/ajmahs.2019.9.2.044>
- Choi, Hyun-Cheol (2017). Aversion, its analysis and philosophical idea. *Philosophical Investigation*,

- 46, 175-199. <https://dx.doi.org/10.33156/philos.2017.46.006>
- Han, Hee-Jeong (2016). Narratives and emotions on immigrant women analyzing comments from the agora internet community (Daum portal site).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75(1), 43-79.
- Hong, Juhyun & Na, Eun-Kyung (2016). Online hate speech diffusion network analysis: issue-specific diffusion patterns, types and intensity of verbal expression on online hatred.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60(5), 145-175.
<https://dx.doi.org/10.20879/kjcs.2016.60.5.006>
- Hong, Sung-Soo (2019). Law and policy on hate. *Journal of Law*, 30(2), 191-228.
<https://dx.doi.org/10.33982/clr.2019.05.30.2.191>
- Huh, RaKeum (2018). Hate speech, it's two faces of oppression: 'Cultural Imperialism' and 'Violence'. *Culture and Convergence*, 40(4), 65-93.
<https://dx.doi.org/10.33645/cnc.2018.08.40.4.65>
- Jin, Kyong-sun, Kim, Su-Yeon, Jeong, Yoo-Kyung, Song, Hyun-joo, & Song, Min (2017). Attitudes towards sexual comments in group texting.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2(2), 289-313. <https://dx.doi.org/10.18205/kpa.2017.22.2.009>
- Jo, Hae-Jeong (2021). The phenomenon of xenophobia in Korea and the idea of intercultural-philosophy. *Cogito*, 95, 141-171.
- Kang, Jingu (2021). The pandemic and hatred: focusing on comments to articles related to Vietnam. *Journal of Multi-Cultural Contents Studies*, 37, 185-212.
<https://dx.doi.org/10.15400/mccs.2021.08.37.185>
- Kim, Ha-Jin & Song, Min (2014). A study on the research trends in domestic/international information science articles by co-word analysi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1(1), 99-118. <https://doi.org/10.3743/KOSIM.2014.31.1.099>
- Kim, Jisoo & Youn, Sug-Min (2019). How does hate speech become a business in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focusing on a talk/camcorder genre broadcast on YouTube and Afreeca TV.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3(3), 45-79.
- Kim, Jongwoo (2021). Anti-discrimination law and polarized human rights: focusing on the Korean media discourse of anti-discrimination law. *Economy and Society*, 129, 84-117.
<https://dx.doi.org/10.18207/criso.2021.129.84>
- Lee, Jungnyum (2016). Online hate speech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focus on the current judge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The Justice*, 153, 37-56.
- Lee, Soo-Yeon, Kim, Hyun-Jung, & Jung, Sooyeon (2016). Text-mining based topic analysis

- on online sexism. *Journal of Cybercommunication Academic Society*, 33(3), 159-199.
- Lee, Younho & Jeong, Seokho (2022). Analysis of hate perception for foreign countries and foreigners on online: focusing on the text-mining analysis of online news article comments from 2019 to 2021.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74(1), 107-131.
<https://dx.doi.org/10.20970/kasw.2022.74.1.005>
- Park Seung-Hee, Yeom, Ji-Hye, & Lee, Hyunjoo (2021). Changes in the image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presented in the April newspaper articles of 1990-2020 in Korea. *Disability & Employment*, 31(3), 165-202. <https://dx.doi.org/10.15707/disem.2021.31.3.007>
- Park, Seung-Ho (2019). The definition and regulation method of hate speech. *Kookmin Law Review*, 31(3), 45-88. <https://dx.doi.org/10.17251/legal.2019.31.3.45>
- Shin, Kyung-Ah & Choi, Yoonhyeung (2020). Ageism in society: an analysis of the comments posted on major internet portal sites concerning news about elderly people.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31(6), 93-128. <https://dx.doi.org/10.14377/KJA.2020.8.31.93>
- Yang, Hyeseung (2022). A text mining analysis on hate comments targeted at women, immigrants, and the elderly: in the context of Naver crime new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6(3), 1-41.
- Youn, Eun-Joo (2019). The understand as a way to counter the expression of disgust. *Human Beings, Environment and Their Future*, 22, 229-250.
<https://dx.doi.org/10.34162/hefins.2019.22.008>

